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9월 일 (제367회)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8년 9월 일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8. 9. .

제 안 자 :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주 문

- 지난해 7월 16일 중부권 일원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괴산댐 상류지역의 농경지 240ha와 주택 64개동이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는 괴산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함

제안이유

- 괴산댐 하류지역 농민들은 수해의 원인이 하루 전날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괴산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하고 수해 당일 오전에는 낮 12시 수문을 모두 개방해 초당 2,643톤의 물을 급방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 댐과 국토부 다목적 댐 안전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제도·구조·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것이 지적된 바 있음
- 따라서, 충북도의회에서도 괴산댐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자원공사로 관리권 이관을 건의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괴산댐 관리권 이관 촉구 건의 의 안

괴산댐은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에 의해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중부권 일원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괴산댐 상류지역인 보은군 산외면·내북면, 청주시 미원면, 괴산군 청천면과 하류지역인 괴산군 칠성면·괴산읍·감물면·불정면 일원 농경지 240ha와 주택 64개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괴산댐 하류지역 농민들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삶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해의 원인이 수해 하루 전날에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괴산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 운영하고, 수해 당일 오전에는 낮 12시 수문을 모두 개방해 초당 2,643톤의 물을 급방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괴산댐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산댐 인근 수해 원인으로 댐보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한 제한 수위 초과 운영 및 홍수 통제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보고 소홀과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인 월류 위험등급 방치 등에 있는 것으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 댐과 국토부 다목적 댐 안전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제도·구조·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인재(人災)라는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다.

괴산댐은 수력발전 댐으로서 발전 효율을 위해 고정적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문관측시설 미흡, 기상예보나 홍수분석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및 댐 상·하류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 한계가 있으나, 다목적 댐은 가뭄·홍수 등 물관리 중심으로 저수위에서 홍수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다목적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충북도에서도 지난 8월 23일 괴산댐 관리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하루 속히 괴산댐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